

민족불교 성지 선학원을 되짚다

⑬ 선학원 법인 인가와 수좌대회

1934년 12월 5일 선학원은 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1925년 9월 6일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사단법인 선우공제회' 설립허가원을 제출한지 9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법인 명칭은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朝鮮佛敎中央禪理參究院)'이었다. 선학원의 설립조사들은 1921년 창설에 이어 1922년 3월 선우공제회를 조직하였다. 민족불교를 표방하고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자 한 설립목적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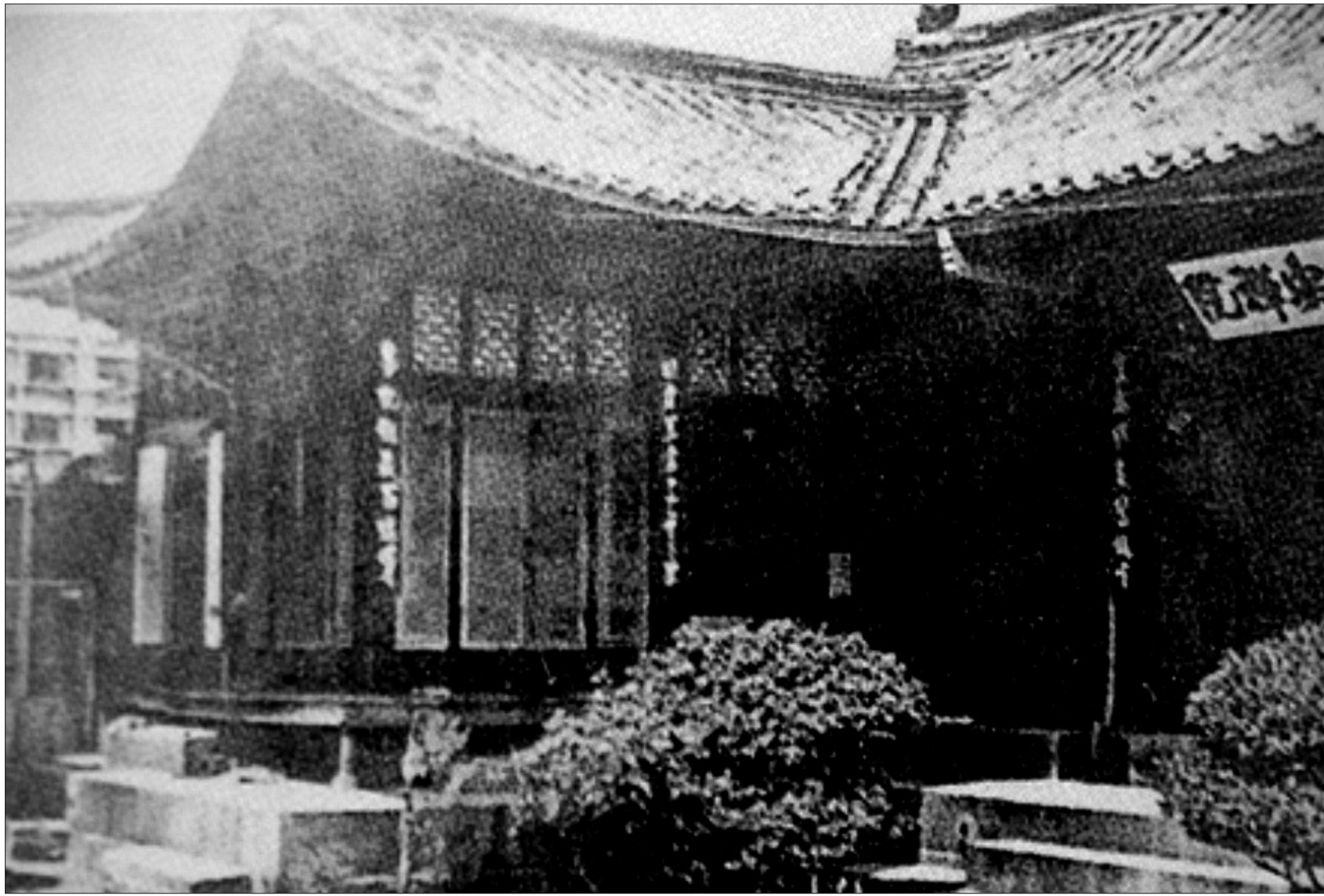
수좌들이 마음 놓고 편안히 공부해서 도를 깨치고 정각(正覺)을 이루어 위로는 시방(十方) 여러 부처님과 조사(祖師)의 해명(慧命)을 잇고 아래로는 악착같은 이교해(苦海)에 해매는 중생을 제도할 인격과 덕을 갖추신 삼계 대도사(三界大導師)가 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수좌들이 먹고 입고 앉아 정진할 보호기관을 만드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급선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선사찰(全鮮寺刹)에 남아있는 재산의 대부분은 수좌 학인신도들 공부하라고 나라와 민간에서 정제를 연출한 것이었지만, 조선불교가 퇴폐함에 따라 그 재산의 대부분이 다른 곳에 많이 소비되어버리고 참으로 참선하는 사람은 도외시되고 돌보지 않은 경향이 농후하였습니다.

1935년 <선원(禪苑)지>에 실린 내용이다. 재단법인 설립의 배경이 진정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불교와 사찰령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고자 했던 당시 불교계와는 전연 다른 행보였다. 비록 대세를 거슬렀지만, 위법망구(爲法亡軀)의 정신이 혹독한 시절을 견디고 결실을 본 것이다. 한 것 몇몇 스님들의 사욕(私慾)에서 시작된 일이었다면 시간의 변덕을 견딜 수 있었을까. 1924년 침체를 겪기도 했지만, 1931년 중흥의 전기를 마련했고 수좌대회를 통해 내부의 결집을 도모했으며, 꾸준히 본분사를 기초로 외연을 확대한 결과였다.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돈 있는 사람이 어느 목적에 토지와 돈을 쓰라고 기부하는 것을 받아 모아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법률상 변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우리 조선불교선리참구원을 두고 말하면 전일 선우공제회 및 기타 승려와 신도들이 토지와 돈과 수좌들이 먹고 입고 공부하는 참선방을 만드는 목적 하에 토지와 현금을 기부한 것을 모은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 조선불교선리참구원이라는 법률상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후로는 기부 받은 토지는 그 법률상 완전한 권리를 가진 법인이 정관에 의하여 행동을 하게 됨으로 다른 사람은 도무지 어찌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 기관의 일보는 이사만이 재단법인 자체의 법률인 정관의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대리법인을 운전하는 바 그것 역시도 적은 일까지 총독부의 허가를 받게 되었으므로 가장 기부된 토지가 완전하고 영원히 수좌보호에 쓰게 될 것입니다.

현재 선학원이 지닌 정체성과 그 기능이나 가치를 모두 담고 있는 내용이라서 장황하지만 그 시절의 목소리를 담았다. 재단법인 신청 당시 9만원 정도였던 재산이 이듬해인 1935년에는 다시 14만원으로 확충된 것을 보면 재단법인은 계속 발전했고, 전국의 수좌만도 368명이나 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불교 중흥 의지 다지며 수좌들 '하나로'



옛 선학원 안국동 중앙선원 전경. 1921년 창립 이후 1925년 법인 신청을 했으나 9년만에 재단 인가를 받았다. 이 같은 법인 인가는 한국 선불교 발전에 토대가 됐다.

1934년 12월 드디어 법인 인가

9년 간 인고 거쳐 결실 맺어

초대 이사장 만공 스님 선임

예산·인원 확대... 꾸준한 발전

1935년 조선불교수좌대회 개최

전국 37개 사찰 수좌 76명 참석

'조선불교선종' 창종 선언 천명

민족불교 정립·선풍 진작 기틀

31본산의 주지조차도 몇 천 원씩이라도 찬조할 의향을 보였으며, 임직 후에는 제위담(祭位券)으로 해당라고 찬조하는 스님들도 있었다.

선학원은 재단법인 인가 이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만공(滿空)스님이 초대 이사장, 한암(漢巖)스님이 부이사장 소임을 맡았고, 성월(暎月)·남전(南泉)·적음(寂音)스님이 상무이사 소임을 맡았다. 이후 선학원은 재산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한 해 예산 역시 증가하였다. 1934년 1,427원이었던 예산이 1935년에는 기부 토지 소작료와 도조 매각대금 등에서 들어온 일부분, 그리고 회사금 수입금액까지 해서 6,200원이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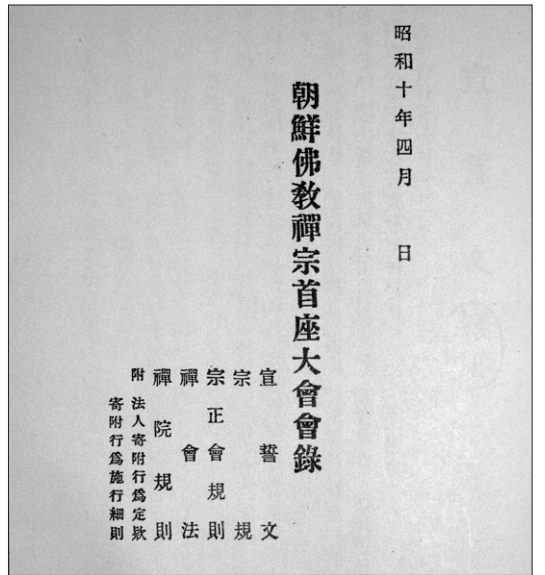
이 재단법인 인가는 선학원이 '조선불교선종(朝鮮佛敎禪宗)' 창종을 선언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예컨대 1934년 12월 23일부터 준비하여 1935년 3월 7~8일 이틀 간 중앙선원법당에서 개최한 제3차 조선불교수좌대회(朝鮮佛敎首座大會)는 창종(創宗)을 위한 선학원의 결집력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였다.

당시 전국 37개의 사찰에서 비구승 69명, 비구니 6명, 총 75명이 참석했으며, 그 밖의 많은 사부대중이 운집하였다고 한다. 수좌들은 명실공히 조선불교 선종(禪宗)의 중단을 표방하고, 중흥을 추대하였으며, 전국 선원의 중앙기관인 조선불교선종중앙원(朝鮮佛敎禪宗中央院)이 성립되면서 간부진도 선출됐다. 당시 중정에는 해월(慧月)·만공(滿空)·한암(漢巖)스님이 대중들의 만장일치로 추대되었으며, 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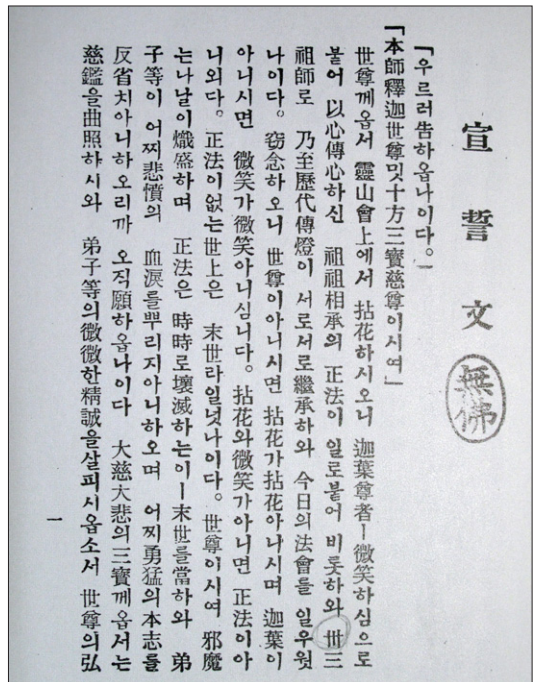
원의 원장은 성월(暎月), 부원장은 석우(石友)스님이 임명되었다. 그밖에 서무·재무·교화이사 등이 선임되었다.

아울러 이날 수좌대회에서는 선종종규(禪宗宗規)·종무원 원칙·선회법칙(禪會法則)과 선원규칙(禪院規則) 등 크고 작은 6종의 규약을 제정하여 통과시켰다. 특히 종지(宗旨)인 불조정전(佛祖正傳)의 심법(心法)을 깨닫기 위해서 선의위원회(禪議委員會)를 구성하여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각 선원에서 안거(安居)중인 수좌 가운데 자격 있는 사람을 선회원(禪會員)으로 선출하여 중요 의안을 심사하였다. 선원규칙 역시 종규(宗規)에 의거하여 제정하였는데, 선원의 주요소임과 그 직무를 소개했고, 안거기간이나 징계 등을 명시하였다.

세존(世尊)이시여, 사마(邪魔)는 나날이 치성하며 정법은 시시(時時)로 괴멸(壞滅)하는 이 말세를 당하여 제자들이 어찌 비분(悲憤)의 피눈물을 뿌리지 아니하오며 어찌 용맹의 본지(本志)를 반성치 아니하오리까. 오직 원하옵나이다. 대자대비한 삼보(三寶)계승서는 자감(慈鑑)을 곡조(曲照)하시와 제자 등의 미미한 정성을 살피시옵소서. 세존의 넓고 자비로운 원(願)을 본받아 머리 숙여 발원하오니 성력(聖力)의 가피를 내리시어 연화(蓮華)와 미소(拈花微笑)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이 천하 총림(叢林)에 다시 떨치게 하시오며, 여래의 지혜로운 빛이 사해전천(四海禪天)에 거둬 빛나게 하시옵소서.



1935년 3월 7~8일 선학원 중앙선원 법당에서 개최한 조선불교선종수좌대회회록.



대회회록에 수록된 선서문의 일부분

인용문은 수좌들이 한마음이 되어 마련한 선서문의 일부분이다. 1921년 선학원의 창설배경부터 1935년 선종 창종을 표방하여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기까지의 시련과 우여곡절을 상징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다. 샛별 마구니는 나날이 치성해져 말세의 제자들이 슬픔과 분노에 북받친 피눈물을 뿌리고 있다는 것은 일제강점기 우리 불교계의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부처님이 깨달으신 직지인심(直指人心)·견성성불(見性成佛)의 미묘한 이치인 정법안장(正法眼藏)이 천하총림에 다시 떨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발원하고 있다. 요컨대 수좌들은 조선불교 선종의 창종을 통해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립과 선풍의 진작을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이라는 선학원의 설립정신을 재천명하고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오영후(한국불교선리연구원 선임연구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보시

현대불교신문사와 삼환양초는 다가오는 칠석과 백중의 소중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양초 2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는 지난 부처님오신날 기념 양초 무료 보시 행사에 이은 두번째 행사입니다. 보시 예정인 초는 흰색 육각초로써 길이 45cm, 판매가 25,000원에 상당하는 고급 양초입니다.

전국 사찰에 한하며, 선착순 500여 사찰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팩스주문만 받으시며, 받으실 1.사찰명 2.사찰주소 3.사찰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후 삼환양초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택배는 받으시는 사찰에서지불하셔야 합니다.

선착순 500셀 한정!!

팩스 031)766-0233